

국내 화재안전교육과 홍보 실태



백 동 현

경원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전국 소방안전관리과 교수협의회 회장

1. 머리말

불은 우리에게 추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 어둠 속의 빛으로 항상 우리 주위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유용한 불도 악용되거나 지나치면 우리에게 큰 해를 주게 된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총 32,66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5,050명, 부상 1,7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재산피해는 1,597억2천1백만원이나 되며 이재민 수는 4,103명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화재가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담배불화재로 나타나고 있다. 근래 경제여건의 곤란으로 인한 비

관 방화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여 전체화재에서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116명, 부상 2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전체 인명피해중 가장 많은 22.2%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취약 시간은 오후로서 화기를 방치한채 자리를 이탈하거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전체 사망자의 38.8%가 취침 중인 밤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에 대한 유용성만 생각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거의 하고 있지 않는게 현실이다.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짓기 위해 소방시설을 이야기하면 건축비, 시설비를 먼저 떠올린다. 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도 이와 같은 의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밀레니엄시대를 앞둔 우리의 화재안전에 대한 의식의 현 주소이다.

따라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에 대한 정규교육 및 일반교육과 홍보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방화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

<표 1>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타

<표 1> 초등학교 화재관련 교육내용

학 년	과 목	내 용	비 고
1	우리들은 1학년 바른생활 즐거로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쓰기 · 도움주는 우리 이웃 ·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분 · 불이 났을 때 · 화재진압 그림, 소화기 사진 · 불조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차 소방관 사진 화재진압 그림 화재신고 요령 전면 그림 4컷
2	국어 생활의 길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 배우는 우리 · 견학한 경험 · 마을 그림지도 ·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소방서 견학 그림 소방서 그림 삽화 소방서 포함 화재진압, 인명구조 그림
3	탐구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조심을 합니다. · 우리를 위해 애쓰는 기관 	만화 10컷 소방서 사진
4	도 덕 체 육 생활의 길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로운 삶 · 안전한 생활 · 신항이의 꿈 	화재현장 어린이 인명구조 그림 안전사고 예방 및 처치 화재진압 그림
5	실과 실습의 길잡이 도 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기구 다루기 · 소화기 · 전기기구 사용시 주의점 · 화재발생원인 및 예방요령 · 분말소화기 사용법 · 불길속에서 어린이를 구한 고등학생 이야기 	종류, 구조, 사용법 그림 6컷 그림 4컷 및 화재원인, 예방요령 정리용 공란 사진 6컷
6	국 어 말하기 듣기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짓기 · 화재신고 · 어린이 불장난 · 글짓기 제목 	글감 중 “안전사고” 사진 3컷 옛날이야기를 통한 교훈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

<표 2> 중학교 화재관련 교육내용

학 년	과 목	내 용	비 고
1	체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처치 · 사고와 예방 · 산업재해 	화재
2	기 술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보호와 관련된 직업 · 화 재 · 국민생활과 법 	소방원이라 표기 전기원인

<표 3> 고등학교 화재관련 교육내용

학년	과 목	내 용	비 고
1	교 련 체 육	· 응급처치 · 안전생활 · 사고의 예방	사고와 재해예방, 구급처치 사고와 재해예방, 구급처치
2	교 련	·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3	교 련	· 화재안전	피해현황, 화재원인 및 예방 화재시 행동요령

난 내용이다. 소방서, 소방관에 대해서 10회, 화재예방에 대해서 14회의 내용이 있으나 불의 개념 등 방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림이나 하는 일만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표 2>는 중학교 학생들의 화재관련 교과내용으로 소방서, 소방관이란 단어만 2회, 화재예방에 대해 3회, 구급처치에 대해 1회로 총 6회가 수록되어 있다. <표 3>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타난 것으로 구급처치에 비중이 많이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화재 예방의 과학적 근거와 체계적 이론 도입 없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

그나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화재안전 관련 교과목이 전무한 실정이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화재안전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 교육에서의 핵심은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이지만 과연 교사들이 화재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설령 교사가 화재안전에 대한 지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에만 관심이 있는 사회풍조가 이를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수도 없이 외치지만 결과 속이 같지 않음이 결국 우리의 의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대학 및 소방관 교육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인 대학교육은 전국적으로 12개 전문대학과 1개 대학에 소방안전관리과가 있어 1,200여명의 소방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배움의 시기를 놓쳤다던가 화재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심화과정인 산업체 위탁과정을 모집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현직 소방관들의 능력개발과 화재진압 및 구조, 조사 등에 역점을 두고 국가 기능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앙소방학교를 비롯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경북에 있는 소방학교에서는 신입, 기본, 전문, 특별 교육과정 등의 4개 과정에 수탁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때문에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지 못한 곳도 있다.

이들 대학, 소방학교의 교육내용이 전문인력의 양성 또는 화재진압능력이나 재교육의 의미라면 일반인의 화재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그 효과가 적다.

다. 일반 기관 또는 단체 교육

<표 4>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취약대상 종사자를 교육한 실적이다. 이와 같이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1개 소방서

<표 4> 소방관서 교육

구 분	어린이, 학생	주 부	노 인	취약대상종사자	계
인 원	2,206,065	401,610	159,173	1,474,316	4,241,164

<표 5> 전국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수 (99. 1. 1 기준)

급 별	구 분	대 상	소 계	계
1 급		•면적 15,000㎡ 이상	2,549	3,088
		•11층 이상	508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31	
2 급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10,226	119,33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102,182	
		•아파트	6,711	
		•도시가스,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32	
		•지하구	87	

에 배정된 1년 예산 중 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로 운영되고 있다하니 교육의 질적 수준이 의심된다.

어린이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고(思考)가 점차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풍부해지기 마련이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래 남을 것이기에 그 의미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표 5>는 전국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수이다. 방화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일선에서 실제 방화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책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체방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홍보, 피난훈련, 소방설비의 관리 및 정비,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선봉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대상물의 실제 주인들의 화재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 관리 투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방화관리자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임시방편적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며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건축물 주인 또는 회사 대표의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3. 홍보현황

홍보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 외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해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방법과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언론매체, 인쇄홍보물 이용

<표 6>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TV나 라디오에 비해 효과가 적은 유선방송이나 CA-TV 활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홍보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표 7>은 인쇄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인데 표어, 포스터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현판, 플래카드 등을 이용한 홍보 실적으로 입간판이나 플래카드가 주로 이용되고

<표 6> 언론매체 종류 및 이용 횟수

TV	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유선	기타
1,725	5,150	1,135	1,790	201	15,553	5,215

<표 7> 인쇄 홍보물의 종류 및 이용수량

표 어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	만화	스티커
50만매	32만매	12만매	8만매	1천부	5만매

<표 8> 현판, 플래카드 등 설치개소

현 판	플래카드	입 간 판	기 타
105개소	12,150개소	28,850개소	3,230개소

<표 9> 다중 이용장소 광고물 종류 및 설치개소

전 광 판	안 내 판	기 타
250개소	1,790개소	8,430개소

있다.

<표 9>는 다중이용장소의 광고물 활용으로서 시내 거리, 지하철 등에서 볼 수 있는데, 그냥의 식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화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우리 나라 교육현황과 홍보활동에 대해 알아본 바 다음의 경우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규교육과정에는 학년별, 단계별 교과목의 신설이나 내용 보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방재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 체험과 재난 유형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체계적 이론도입이 필요하며 교사용 도서 등에 수록하여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인 교육을 위해서 화재관련 단체 및 대학에서는 사회와 연계된 Program 개발이 필요하다. 씨랜드 화재의 영향도 있겠으나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셋째, 가장 긍정적인 것은 재정지원이다. 일부 단체나 기관에 위임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예산 담당자나 기업 단체장은 그 위험도를 고려하여 관리 투자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법상 특수장소는 소방검사 또는 각종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 차량 등 특수장소 이외의 곳은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방교육과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소방안전 계몽운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우리 환경이 발전 지향적이었다면 밀레니엄시대에는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며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적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규제완화는 분명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법이 있어 실행되는 경우가 화재안전분야이다. 화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규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식이 성숙되어 스스로 화재로부터 보호받고자하는 의식변환이 이루어질 때 법규를 완화시켜도 늦지 않다.

씨랜드화재처럼 건축물도 아닌 건물을 눈가림으로 지어놓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른들의 물질만능주의에 또다시 귀한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지진, 홍수, 폭풍우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화재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혼장도 반납하고 외국으로 이민가겠다는 어느 어머니의 외침을 다시 한번 귀에 새겨야 할 때다.